

경영위기 부채농가의 재도약 지원

농어촌공 전복, 농업인 경영회생사업 큰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019년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43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363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에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8년에 도입되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사업도입 이

후 전라북도 관내지역에 2019년 5월 현재까지 1,482농가가 3,605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하

여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산업기술보호 파수꾼, '통합지원사업'에 노크하세요!

중기부, 법률자문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기술탈취 및 유출 예방대책에 대해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보호 통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증대되는 기술탈취, 유출에 대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관련 사업을 확대, 법률자문, 보안교육, 기술지킴이서비

스, 보안시스템 구축 등 피해 대비 사전 예방책은 물론 분쟁 조정, 중재 등 사후 피해구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 사업은 기술침해 사건의 초동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지난해 발족한 '기술보호지원반'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자체 보안능력을 배양하여 보다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내용 중 보안시스템 구축(~6.14)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시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기업에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보호 전문기관인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술보호 접점기관과 소통을 위한 '기술보호협의회'를 강화해 협업을 진행함은 물론,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2018.12.13~)된 행정조사제도의 적극 추진 및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 예정이다.

김광재 청장은 "실효성 있는 구제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 보안 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예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정보 보호에 이중 잠금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 유틸리티(www.ultari.go.kr)를 참고하여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10-6441) 또는 대도시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LX, '상생지략' 혁신성장 주춧돌 마련 앞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상생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토정보공사(이하 LX·사장 최창학)가 전북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모델 연구용역을 공모한다.

'지역산업육성 특화모델 개발 연구'(1억2,400만원)는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핵심 역량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화 가능성에 따라 차등체외도 협력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29일~6월 7일 LX전자조달시스템(<http://ehid.lx.or.kr>)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LX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LX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통해 6월 최종 적격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국 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은 "LX가 먼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운영방향에 맞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무엇보다 전북지역 대학들이 산학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4월 도내 광공업 생산량 전월대비 0.7% 증가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는 2019년 4월 산업활동동향은 광공업 생산 전년 동월대비 3.1% 감소, 전월대비 0.7% 증가했으며,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전월대비 0.5% 증가,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6.3%, 전월대비 4.1% 각각 증가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생산은 4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했고 4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식료품, 금속가공, 음료 등은 증가했으나 1차 금속, 전기·가스·중공업, 화학제품 등이 감소하고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출하는 4월 전북지역 광공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4.5% 감소로 나타났다. 4월 전북지역 광공업 출하는 식료품, 금속가공, 음료 등은 증가했으나 1차 금속,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이 감소했으며,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한편, 2019년 4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은 4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매지수는 78.0으로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했으며, 가전제품, 오락, 취미, 경비용품은 증가했으나 음식료품, 기타상품, 신발, 가방, 의복, 화장품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aT, 양파 수출 확대 위한 간담회 가져

최근 양파의 국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aT가 해법찾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세종시에서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양파 수출업체와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양파는 평

년 생산량인 113만톤 보다 13% 증가한 128만1,000톤 내외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격리, 자율 수급조절과 함께 수출을 통해 과잉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aT에서는 (주)에버굿, (주)NH농협무역, (주)경남무역 등 양파 주요 수출업체와 함께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수출국의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체에서는 지자체 물류비 지원 확대와 함께 베트남 등 신규 수출가능국에 대한 해외 판촉행사 지원을 요청했으며, 다양한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간담회 수출을 통한 식자재 시장 공략, 1kg 소포장 수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농식품부와 aT도 신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판촉 지원과 함께 대만, 태국 등에 설치된 한국 신선농산물 전용관인 K-Fresh Zone 입점 등을 통해

전년도 수출물량인 3,436톤보다 약 5배 신장한 15,000톤 이상을 수출 목표로 정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근 aT 식품수출이사는 "국산 양파가 매년 생산 변동폭이 심하고 중국, 미국 등 경쟁국가보다 높은 가격 등으로 수출국이 한정되어 있으나 품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며, "정부, 수출업체와 함께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수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이 'NH사장님우대통장'을 출시했다.

“김사장님도 금융수수료 면제 받으세요”

전북농협, 자영업자 위한 '사장님우대통장'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스마트뱅킹과 ATM 등 수수료를 면제해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돕는 'NH사장님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사장님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가 가입 가능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제로페이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가맹점통장으로 이용하면 인터넷/스마트뱅킹 수수료와 ATM수수료, 통장 재발급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또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한글로 총 7가지 통장의 상품명을 지정할 수 있는 '셀프 네이밍'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NH김사장님우대통장, NH대박맛집식당사장님우대통장과 같이 NH 사장님우대통장 사이에 한글로 총 7가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김장근 본부장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특화된 상품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며,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상품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2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이스타항공, 추가 위탁수하물·기내식 번들서비스 오픈

이스타항공이 추가 위탁수하물과 기내식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번들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스타항공은 할인운임과 정산운임을 예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라이트, 스페셜, 프리미엄 등 3단계로 번들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각의 번들서비스는 노선에 따라 가격이 구분되며 노선별로 제공 가능한 기내식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라이트는 사전위탁수하물 5kg과 기내식을 포함한 서비스로 노선별 최저 25,000원부터 최대 39,000원이며, 스페셜은 수하물 10kg과 기내식이 포함되어 최저 40,000원부터 최대 64,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프리미엄은 수하물 15kg과 함께 기내식이 제공되며 최저 55,000원부터 최대 89,000원이다. /김영태 기자

번들서비스는 기내식과 추가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각각 따로 구매했을 때보다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 보다 합리적인 항공여행이 가능하다.

번들서비스 구매는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구매 가능하며 출발 72시간 전까지 주문, 변경, 환불 가능하다.

항공권 운임 선택 단계에서 번들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항공권 구매가 완료된 뒤에도 나의예매내역을 통해 추가 번들서비스 구매도 가능하다.

이용 가능 노선은 이스타항공 국제선에 한하며 일부 국제선은 제외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